

“안전 무시... 이런 비극 다신 없어야”

여수폭발 희생자 영결식 유가족 등 500명 눈물 바다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야. 불쌍해서 어찌나, 부디 좋은 데 가거라.” 여수산업단지 내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로 숨진 조계호(38)씨의 늙은 어머니는 운구차에 실리는 아들의 관을 붙들고 오열했다. 순간 메달라 붙은 유족들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번지더니 끝없는 통곡이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눈물 바다로 변했다.

19일 여수시 여수장례식장에서 열린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 희생

자들의 영결식은 부실한 안전 관리로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 속에 치러졌다.

대형참사의 원인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립산업 등에 대한 원망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유가족들은 “애초에 안전관리를 잘했다면 이런 비극이 생겼겠느냐”며 업체 관계자들의 무사안일을 성토했다.

조씨를 비롯한 사고 희생자들인 고백중만(43), 김종태(53), 서재득(54),

이승필(42), 김경현(40)씨의 가족들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남편을 먼 곳으로 떠나보내는 슬픔에 6명의 운구가 차례로 차량이 실릴 때마다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다. 이대로는 못 보내겠다며 통곡하다 끝내 쓰러지기도 했다. 함께 자라한 동료와 지인 등 300여명도 끝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영결식 뒤 고인의 시신이 실린 운구차는 사고현장인 대립산업 2공장을 둘러 잠시 머물다 노제가 열릴 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대립산업 임직원과 노조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애도의 뜻을 표했다.

이어 추모객 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노제가 시작됐고 신성남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장이 희생자들의 이름을 연이어 부르며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면서 “다시는 억도 했다. 함께 자라한 동료와 지인 등 300여명도 끝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영결식 뒤 고인의 시신이 실린 운구차는 사고현장인 대립산업 2공장을 둘러 잠시 머물다 노제가 열릴 공장 정문 앞으로 이동했다. 대립산업 임직원과 노조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여수 대립산업 폭발사고 희생자 영결식이 열린 19일 여수시 신월동 여수장례식장에서 한 노모가 폭발사고로 숨진 아들의 영정사진을 어루만지며 오열하고 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사일로 맨홀공사 앞당긴 경위 조사

여수경찰, 작업허가서 위조 여부도 대상

17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산단 대립산업 화학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공장 내 저장탑(silo·사일로) 맨홀 설치 공사가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져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고밀도 폴리에틸렌 중간 원료를 저장하는 사일로의 맨홀 설치 작업은 예초 16일 예정됐지만 14일로 앞당겨졌고 대형 사고 발생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맨홀은 사일로 내부 검사를 위해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한다.

경찰은 이에 따라 작업 공정이 앞당겨진 사유를 대립산업과 하도급 업체인 유한기술을 상대로 조사중이다.

야간 근무를 할 경우 하청업체 근로자들에게 이를 치 임금 지급기로 한 점, 조업 단축을 통한 정상 가동이 회사 측에 도움이 된다는 산업계 시각 등을 감안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게 경찰 입장이다.

조속한 조업 정상화를 위해 공기를

앞당기려 하다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산업계 시각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찰은 또 작업허가서에 불꽃 작업(용접)은 승인이 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집중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용접 작업을 금지했다는 대립산업 측과 대립산업의 허가를 받아 작업을 실시했다는 유한기술 측 주장이 엇갈리는 데 주목, 진술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또 “용접 현장에 대립측 현

장감독자가 있었다”고 언론에 증명한 근로자들의 진술에도 주목하고 있다.

작업허가서 위조 여부도 경찰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회사와 공장 관계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 드러나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전석종 전남지방경찰청장은 “폭발 사고 원인과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확보, 정확한 원인 및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다단계 하도급 여부까지 조사할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기자 chkim@

죄의식 없는 10대들

같은 아파트서 자전거 훔치고 교무실서 친구 스마트폰 슬쩍

‘친구도 없고 후배도 없다’ 10대들의 죄의식 없는 절도 행각이 끊이지 않는다. 광주서부경찰은 19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중학교 후배 아버지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로 김모(16)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3일 새벽 2시에 광주시 서구 동천동 한 아파트에 묶여있던 김모(45)씨의 시가 33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김군은 후배 김모(14)군이 자전거 자물쇠를 잠

글 때 비밀번호를 엿본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도 지난 1월 중순 북구의 한 고등학교 교무실에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친구 휴대폰을 훔친 이모(17)군을 절도 혐의로 입건했다. 이군은 훔친 스마트폰을 인터넷을 통해 매매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청소년상담지원센터 김희국 상담지원장은 “성장기 청소년들은 충동적으로 범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에 대한 가정과 학교, 보호기관의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

나원침 (8777) 김장두



전남 봄 산불 2배 늘었다

논밭두렁 태우기가 주범

전남지역에서 올 들어 산불 등 임야(林野) 화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임야화재 건수는 1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건 보다 건수는 91건, 2배 가까이 늘었다.

이 기간 전체 화재 건수 670건의 21%를 차지했다.

논밭두렁을 태우다 소방차량이 출동한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산불이 26건, 숲과 묘지화재 20건 등이다.

화재로 4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했으며 재산피해도 2억1300만원에 달

했다.

특히 70대 이상 노인들이 무리하게 불을 끄다가 숨지거나 혼자 힘으로 대피를 못해 번을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화재(94%) 대부분이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우다 부주의로 발생했으며 상당수는 산불 등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전남지역 전체 화재 발생건수는 2천425건이며 가운데 산불 등 임야화재는 8.9%인 217건이었다.

전남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올 봄은 유난히도 날씨가 건조해 산발발생 위험지수가 매우 높은 편”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정렬기자 halo@kwangju.co.kr

무안 화물차 승용차 충돌 운전자 등 둘 숨쳐

19일 새벽 6시16분께 무안군 청계면 청계리 구암삼거리에서 목포에서 무안방면으로 직진하던 노모(40)씨의 액티언 승용차와 무안에서 일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김모(58)씨의 1t 화물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 김씨와 동승자 김모(47)씨가 숨지고 노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민준기자 jun@

영화 출연 미끼 휴대전화 싸쓸이범 실행

광주지법, 1년10월 선고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종석 판사는 19일 “영화에 보조 출연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모집한 사람들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우모(27)씨에 대해 징역 1년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씨는 1년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동의 없이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되파는 범행을 반복했고 이전에도 허위광고로 돈을 가로채 처벌된 적이 있어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며 “범행을 반성하고 훔친 휴대전화를 상당수 반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개목걸이로 아내 발목 묶고 폭행

○아내와 딸싸움을 하다 개목걸이로 아내의 발목을 묶고 때린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19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정모(45)씨는 지난 17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35)씨와 딸다툼을 하다 화를 참지 못하고 개목걸이로 아내의 양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 등을 수 차례 때렸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정씨는 평소 자주 집을 나간 아내가 또다시 집을 나가 딸다툼을 벌였는데, 아내가 대를 참지 못하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판명.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15일간 백두산악이 드리는 최고의 봄맞이 선물

의류전품목! 무조건 50%

주)백두산악 무등산점 062-236-1187

EOS 6D

 「세계 최경량* 풀-프레임」

행사장소 광주광역시 북구 임동오거리 소니센터 맞은편(캐논출판) 문의전화 062)383-3000